

‘섬유 한국’ 신화 주역...호남을 사랑한 재계의 큰 별 지나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별세

지난 29일 향년 89세로 별세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은 국내 섬유산업에 큰 획을 그은 '재계의 거목'이었다. 특히 '섬유의 반도체'로 불리는 스판덱스, 타이코덱 등 효성의 제품들을 독자기술로 세계 1위에 올려놓음으로써, 국가경제는 물론 국내 기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조 명예회장은 평소 기술 중시 경영을 펼치며 '경제발전과 기업의 미래는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개발력'에 있다고 경영철학을 강조했다. 기술에 대한 집념으로 국내 민간기업 최초 기술연구소 설립했으며, 신소재는 물론 신합성·석유화학·중전기 등 산업 각 방면에서 신기술 개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 이 같은 '기술 중시 철학'은 효성그룹이 글로벌 소재 시장에서 리더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했다.

생전의 조 명예회장은 호남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효성그룹이 지난 2013년 1조2000억원을 투자해 전주에 설립한 국내 최초 탄소섬유 생산공장은 기술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 계기였다. 당시 경남 창원외의 공업단지 내 효성의 가용 부지가 있었음에도 전주에 탄소섬유 공장을 건립한 것은 조 명예회장의 호남에 대한 비전과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평가받는다.

'꿈의 신소재'인 탄소섬유는 무게가 강철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강도는 10배, 탄성률은 7배

향년 89세...1982년부터 그룹 이끌어 미국·일본서 화학공학 공부 '꿈의 소재' 탄소섬유 한국최초 개발 원천 기술 중심 '경영 철학' 강조 국내 첫 민간 기술연구소 설립 전주에 탄소섬유 생산공장 건립 전남도와 그린수소산업 육성 협약

에 달한다. 우주, 항공기를 비롯해 자동차, 레저, 풍력 등의 산업 분야와 스포츠 용도로도 활용되는 경량화 핵심 소재다.

또한 효성그룹은 지난 2022년 전남도와 '그린수소 산업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 전남을 우리나라 그린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중장기적으로 1조원을 투자해 2031년부터 연간 20만t의 그린수소 생산 공급, 액화수소 생산 플랜트 2개소 및 수소 전용 항만 공급시설 설치, 부생수소-그린수소 활용 액화수소 충전소 9개소 구축 등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그린수소 사업이 본격화하면 '전남에 세계 어디에도 없는



지난 2004년 5월25일 효성그룹 명예회장(앞줄 가운데) 등이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활력회복을 위한 대기업 대표와의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간담회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효성 제공)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원대한 계획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 명예회장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 국제화 과정을 주도했던 주역으로 지난 1982년부터 효성그룹 2대 회장을 맡았다. 1935년 경남 함안에서 효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조흥재 회장과 하정옥 여사의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경기도 재학 시절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하비야 고교를 거쳐 와세다 대학교

이공학부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일리노이 공과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준비하던 중, 1966년 부친의 부름을 받고 경영자의 길을 걷게 됐다.

유학 시절 마스터하디스피 한 영어와 일본어는 이후 글로벌 기업인들과 교류를 하는 데 큰 자산이 되었다. 특히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국내 기업인들로는 처음 명예공학박사학위를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국내 기업인들이 받은 명예박사학위는 대

부분 경영학이었다. 공학박사학위로선 전례를 찾기가 힘든데다 국내 기업인 중 일본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았다.

2014년 와세다대학이 수여한 명예박사학위 추천장에는 "조 회장은 지난 70년대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한국 화학산업에 첨단 혁신공법을 도입하는 등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했는가 하면,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에 강화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에 힘쓰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 명예회장은 대미 수출 증대의 기폭제가 됐던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미 FTA는 지난 2000년 조 명예회장이 전경련회장을 맡고 있던 당시 처음 주재한 한미경제회의에서 논의됐다. 당시 조 회장은 '외환위기로 빚어진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방법만으로는 안 된다'며 한미 FTA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계기로 양국 재계 인사들의 견해가 있었으며, 이후 7년 만에 결실이 이루어졌다.

한편 유족으로는 부인 송광자 여사, 장남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삼남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등이 있다. 장례는 효성그룹장으로 2일(화) 5일장으로 치러진다. 이후구 전국무총리가 명예장례위원장을, 이상은 효성 부회장이 장례위원장을 맡는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있으며, 영결식은 2일 오전 8시에 열린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명박 전 대통령·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추모

각계 인사들 발길 이어져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는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각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0일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차려지자 본인 명의로 조화를 보내 고인을 추모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장례식장을 찾았다. 조문을 마친 한 총리는 "(조 명예회장은) 제가 지난번 총리를 할 때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으로 경제계를 대표해서 일을 많이 하고, 한미 간에 우호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다"고 회고했다.

고인은 전경련 회장(2007~2011년) 재임 시 규제 개혁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투자 활성화에도 앞장섰다.

한 총리는 이어 "국내적으로는 경제계를 살리기 위한 규제 개혁 쪽에 전경련에서 작업도 많이 했고 정부와 일도 같이 많이 해주신 분"이라며 "제가 항상 존경하는 기업인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문을 왔다"고 덧붙였다.

4대 그룹 총수 일가 중에서는 지난 3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 함께 가장 먼저 빈소를 찾았다.

범호성기와 사돈시간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연합뉴스

재인 지난 31일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빈소를 찾았다. 조문을 마치고 나온 이 전 대통령은 "고인은 (내가) 대통령 재임 때 전경련 회장이 됐다"며 "그 당시 세계 금융위기가 와서 경제가 어려울 때니까 조 명예회장이 인솔해서 기업인들이 협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31일 오전 빈소를 방문했다. 김 의장은 자신이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낼 당시 조 명예회장이 한미경제회의 의장이었다며 "그때 우리 경제가 참 어려웠는데 미국이나 일본 경제계와 잘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던 분이러 많이 도와주셨다"고 회고했다.

고인의 동생인 조양래 한국엔컴퍼니(옛 한국아이그룹) 명예회장은 이틀째 빈소를 찾았다.

이밖에 정몽준 야산재단 이사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고인의 전 경련 후임인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 전경련 후신 한국경제인협회를 이끌고 있는 류진 풍산그룹 회장도 조문 행렬에 동참했다.

또 최창원 SK스팩스추구협회의 의장(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기업인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전 야구선수 박찬호, 가수 싸이, 방송인 강호동 등 각계 인사들이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해외 인맥 풍부한 '민간 경제 외교관'

유럽·일본·중국 등 경제협력 강화

조석래 명예회장은 그룹 경영 외에도 '민간 경제 외교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미국은 물론 유럽,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와의 경제협력 강화에 남다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미FTA 체결 당시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에 기여를 했으며 대일 무역 협조 해소, 한일 간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한일경제공동체 추진 등 한국 경제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앞장섰다.

조 명예회장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국내 재계의 '얼굴' 역할을 했다. 기업 입장을 대변하며 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마다하지 않았고 일자리 창출, 국제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또한 풍부한 국제 인맥을 토대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 경제인들과 활발히 교류했다. 한미경제회의 한국위원장, 한일경제협회 회장, 한중경제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교역 상대국과의 가교 역할을 한 점은 '미쓰시글로발'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

무엇보다 조 명예회장은 일본을 가장 잘 아는



2009년 7월 제주하계포럼에 초청된 부시 전 대통령과 인사하는 조 명예회장(왼쪽). (효성 제공)

기업인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일본 와세다대학교 동창인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와는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2014년 조석래 회장 산수기념문집 발간위가 펴낸 '내가 만난 그 사람, 조석래'에서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는 "조 회장은 전경련 회장, 한미경제회의 의장, 한일경제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폭넓게 한국 경제·산업계의 발전에 공헌해 오셨다"며 "또한 내게는 와세다대학 동창이기도 하며, 한국에 있는 소중한 친구 중 한 사람이다"고 언급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과정)

- 일 시: 2024. 3. 13(수) 오후7시
- 장 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 푸리보석2층)
- 수강료: 풍수+사주 = 20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2024. 3. 6(수) 오후7시
- 장 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누구나 (신청소 ○○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전기비법 대공개
- 기강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남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010-2246-1508

2024 고소득 추천 목록

포포나무	제릭스 빅걸	선플라워×샌노리스 품종의 교배를 통해 선발된 최고 크기의 포포, 최대 과중 800g
	리만스 달라이트	프로리픽×샌노리스 품종의 교배를 통해 육종된 품종. 달콤한 향이 뛰어난 품질을 자랑
	마리아스 조이	최대과중 631~704g, 년중 수확량 우수, 유명 과수 학자가 지칭한 최고 맛있는 포포
사과	신품종부사 후지사과	인따기와 반사필림을 갖지 않아도 동서남북 색상이 잘나고, 저장성이 우수하며 신맛은 적고 최고의 맛을 자랑합니다
감	감풍, 원추	신품종, 추위에 강하고 수피 단감
	태추단감	배 맛이 나는 단감 중에 최고!
	슈퍼대봉	대봉중에 맛이 뛰어난 식재를 많이 합니다.
업나무	민업나무 가시없는 업나무	가시 없는 민업나무 가시 있는 것보다 수확이 2배가 나오고, 효능이 같습니다.
두릅	민두릅 참두릅	가시없는 민두릅, 참두릅, 정강두릅은 봄부터 가을까지 수확

사과, 신품종 호두, 신품종 유실수 등 품종이 다양합니다.
※2024년 인기 품종으로 조기 품절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무는 "gap농원"과 상담하세요!
묘목 식재 및 재배 관리까지 무료교육, 무료상담 해 드립니다.

휴경지 노는 땅 상담해 드립니다.

목욕상담 010-3121-7676
문의전화 053-856-1144
경북 경산시 하양읍 화성로 25
농철 703-02-497271(예금주 정준화)

gap농원

제14기 결산공고

재무상태표

(2023년12월31일현재) (단위: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자	산	부	채
I. 유 동 자 산	2,143,648,530	I. 유 동 부 채	687,260,124
1. 현금및현금성자산	1,387,179,459	1. 매출채무 및 기타채무	440,512,332
2.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420,427,504	2. 리스부채(유동)	64,456,293
3. 채 고 자 산	114,747,000	3. 기타 유동부채	172,067,756
4. 기타 유 동 자 산	146,699,850	4. 당기 법인채무	10,223,743
5. 당기법인채 자산	74,594,717		
II. 비 유 동 자 산	6,475,781,307	II. 비 유 동 부 채	800,846,969
1. 장 기 금 용 상 품	16,508,400	1. 리스부채(비유동)	48,349,451
2. 기타비유동금융자산	61,448,975	2. 기타 비유동부채	7,964,991
3. 유 형 자 산	6,287,870,321	3. 순확정급여부채	700,815,260
4. 사 용 권 자 산	109,953,611	4. 이연법인채부채	43,717,287
		부 채 총 계	1,488,107,113
		자	본
		I. 자 본 금	500,000,000
		II. 기타 불입자본	4,232,607,645
		III. 기타 자본구성요소	1,298,391,577
		IV. 이익 잉여금	1,100,323,502
자 산 총 계	8,619,429,837	부 채 와 자 본 총 계	8,619,429,837

위의 같이 공고함.

2024년 04월 01일
주식회사 전주에너지
대표이사 박 흥 주

분묘개장공고(2차)

상사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조 제 18조 규정에 의거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분묘소재지: 전남 여수시 호명동 신34-1번지
- 분묘가수: 4기
- 개장사유: 사유 재산권 보전
-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부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할청에 의거 공고자가 임의개장
- 안치 장소: 전남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1347-5번지 (여수시공공묘지 제2청양묘장)
- 안치기간: 10년
- 공고기간: 2024년 4월 1일부터 3개월간
- 고지처: 후동철 (연락처 010-314-6975)
- 신고서 기재사항: 매장인 분묘소재지의 관계 증명서 (족보, 제적등본, 가결, 사실확인서 등)
- 기타사항: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와 같을 것입니다.

2024년 4월 1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고인: 홍흥성

72년을 밝힌 호남인민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들과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역안내

· 동 광 266-1920 · 문 통 266-1960
· 북 광 525-3761 · 신 신 222-6171
· 남 광 571-7658 · 오 오 266-7801
· 용 통 433-1503 · 유 신 433-1503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명 222-9054
· 중 정 222-8171

· 남 부 673-6836 · 북 명 651-1833
· 북 신 673-6836 · 송 송 675-6605
· 진 통 671-7276

· 관 천 382-5788 · 상 부 372-2352
· 서 광 369-1625 · 윤 천 376-7153
· 치 명 376-6511 · 통 통 603-0311
· 화 정 369-1625

· 은 남 952-1687 · 월 골 959-1920
· 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신 944-0444